

야! 찾았다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지부

소식지 겨울호

펴낸날 : 2003. 9~12월호 펴낸곳 :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지부
 주 소 :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우편번호 : 100-391
 전 화 : 02) 2271-1548 팩 스 : 02) 2275-8506 WWW.kdta.or.kr

☐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지부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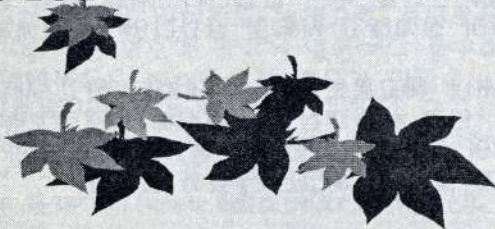
*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지부는

모든 아동의 인권보장 및 올바른 보육내용, 바람직한 보육권리의 실현을 위한 제반 활동과 보육교사들의 사회적 지위향상 및 권익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좋은 교사가 되고자하고 좋은 어린이집을 만들고자하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육에 애정과 긍지를 가진 보육교사들의 모임입니다.

* 주요 활동

1. 매월 월모임을 통해 보육현장의 현실을 진단하고 공유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며, 보육환경을 바꾸는데 필요한 회원교육을 합니다.
2. 매년 여름교육연수와 강좌를 개최하여 보육교사를 위한 재교육을 합니다.
3. 회원의 날, 회원 수련회 등을 통해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의 힘을 북돋아주는 활동을 합니다.
4. 분기별로 소식지를 발간하고,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여 회를 알리고 정보를 제공하고 보육교사들과 교류를 합니다.
5.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사회적 인식을 높여내는 활동과 함께 지역의 보육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에 필요로 하는 보육 정책 사업을 합니다.



■ 이것만은 알고 있자구요

보육교사의 고용안정을 위한 권리찾기 1 -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보호에 대하여 -

서울보육교사회 근로기준법 연구 모임

지금 보육현장에서는 교사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부당해고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음에도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런 풍토를 없애고, 교사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나누기 위해 근로기준법 연구모임에서 연구한 내용입니다.

1. 해고의 종류

해고는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것입니다. 그 종류를 통상 두 가지로 나눈다면 징계해고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이른바 정리해고)가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징계해고이고 노동자에게는 책임이 없지만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정리해고입니다.

2. 부당한 해고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30조에 의하면 어느 경우라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징계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에게 책임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먼저 사용주가 노동자에게 “갑”이라는 사유가 있음을 들어 징계해고 하였다 할 때 “갑”이라는 사유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갑”이라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그 해고처분이 정당한 지는 “갑”이라는 이유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애당초 징계해고 사유로 삼았던 것과는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을” “병” 등의 새로운 이유까지 포함하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취업 규칙 등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들어 징계해고 사유로 삼았다면 그 징계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해고 당시 징계의결서나 해고통보서 등에 명시된 해고 사유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4인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로계약 시 징계사유 항목을 제시하지 않아 교사가 이 항목을 몰랐다면, 정당한 해고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2) “갑”이라는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된 사유 자체가 적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징계 이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에게 책

임 있는 사유’와 무관한 것이거나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을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 다음으로 “갑”이라는 사유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그 자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전후 사정에 비추어 노동자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으로 해고를 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은 경우 이어야 합니다. 즉 해고는 노동자에게 가장 불이익한 제재조치입니다.

해고의 전후사정에 비추어 해고보다 가벼운 제재조치(정직, 감봉, 견책 등)에 의하여 그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가장 극단적인 해고 조치를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이러한 징계권 남용여부가 가장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4) 해고 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실을 통보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경위서 등을 제출하게 하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징계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므로 징계절차 전부에 걸쳐 절차위반이 없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에 노동자측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 징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에 위반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면 그 징계절차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에 노조간부 등의 인사에 관하여 노조의 동의 내지 합의 규정한 경우에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그 해고처분은 무효입니다.

5) 위에서 살펴본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은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부당해고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노동자도 실제 소송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반박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고 과정에서 절차미비나 사용가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가 이유 없는 것임을 증명할 만한 증거들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해고 한번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보호의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용주의 말 한마디에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권리에 대해 많이 이해할수록 당당하게 현장에서 일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번 호에 이어 다음 호에는 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법 조항과 보육현장에서의 부당 해고 관련사례를 실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한국보육교사 홈페이지(www.kdta.or.kr) 서울지부 방 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그날의 풍경.....

서남 발도르프어린이집을 다녀와서

이경녀(씩씩이어린이집)

요즘 나는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고, 또 아이들이 다른 이의 권리를 존중해 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과 이러한 시도를 하는 과정인데 아이들은 정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알려고 그러는지 늘 나를 시험에 들게 한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어수선하며 아이들과 교사간의, 아이들간의 갈등으로 하루가 시끄럽게 흘러가 정말 힘들고, 잠자리에 들어 '내가 진정 괜찮은 보육교사인가?'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요즘이다.

그러던 차에 서울지부에서 마련한 '체험 보육의 현장'으로 서남 발도르프어린이집을 견학하게 되었다.

서남발도르프어린이집은 독일의 발도르프 철학을 한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발도르프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서남발도르프어린이집의 얘기는 이미 선미 샘을 통해 여러 차례 들어왔고 우리 회원들 몇몇 사람은 발도르프 철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음을 알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남발도르프어린이집에 들어선 순간 정말 '별나라'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스팔트가 흘러 넘치는 서울의 한복판에서 흙마당과 마당에 박혀 있는 나무 기둥들.

그리고 안으로 들어서니 은은한 조명과 교사들의 안정된 몸짓에 절로 내 목소리도 잦아들고 마음에 편안함이 찾아온다.

보통 어린이집들은-물론 우리 집도 그런 부분이 있다- 밝은 분위기를 위해 알록달록한 환경판과 원색과 파스텔톤의 교구장, 놀이감들이

늘어 서 있다면, 별나라어린이집은 창을 이용해 자연 채광을 받아들이고 전등 역시 한지를 둘러 은은한 빛을 내게 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놀이감은 도토리, 솔방울,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나무, 인형, 씨앗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놀이감과 놀이감을 담고 있는 그릇들도 모두 자연물이거나 자연물로 만든 것들이었다.

TV와 오디오세트는 찾아 볼 수 없었다. 교사의 설명을 들으니 사람의 목소리가 최고의 음악이라고 한다.

서남발도르프어린이집을 둘러보고 일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그 동안 내가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의 해답 하나를 얻은 듯 했다.

보육시설은 아이들이 편안하게 생활해야하는 곳이다. 어린이집이라는 이름에서도 나와 있듯이,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자기들의 집에서 가장 편안하게 느낀다.

이제 나도 내 현장에 돌아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집을 내 집처럼 아늑하게 바꿔야겠다.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부터 조금씩 바꿔 가다보면 언젠가는 인권보육이 실현되리라.

서남발도르프어린이집에 대한 고마움과 작은 깨달음을 얻고 돌아온 날이었다.



■ 삶의 향기.....

안식년 후 복직을 하면서...

- 김 옥 희 -

2년입니다.

자그마치 2년이나 쉬었습니다.

처음 1년은 결혼과 동시에 7년째의 안식년을 맞아 (유급휴가랍니다) 쉬고, 다음 1년은 아이가 생각보다 늦게 생겨 복귀할 때쯤 입덧은 가셨지만,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 동료 교사들과 주위 사람들과 저의 의견이 모아져 1년을 더 쉬게 되었지요.

처음 1년은 결혼 후의 집 정리와 살림 꾸리기, 아기 갖기(?)에 열성으로 지나가고, 그 다음 1년은 아기 낳을 준비와 출산, 아기와 의 시간으로 꿈결 같이 지나갔지요.

간간이 배우고 싶던 것도 배우고, 운동도 다녔지만 별로 남은 것이 없어 후회가 되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복된 셈이었어요.

그리고 새터에 대한 고마움, 주위 사람들로 부터 “그런 직장이 어디 있니?” 하는 소리를 들으며 생기는 뿌듯함은 새터에 대한 그리움을 이끌어 냈지요. 이런 저런 사정? 핑계!로 생각과는 달리 교회에도 잘 못하는 불량 교인이었지만요. (안식년에도 교회는 다녀야한답니다.)

드디어 2003년 2월에 적응에 들어갔어요. 모르는 얼굴 몇몇, 3살이었던 아이들이 5살이 되어있더군요. 그래도 기억하는 아이들이 있대요.

가장 힘든 것은 우리 형주를 맡기는 일. 다 아는 언니들인데도 젖을 갓 떼어 우유병을 겨우 빠는 아기를 맡기자니...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 다녀온 후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새터에 가고 싶었는지를, 아이들의 에너지를 얼마나 느끼고 싶었는지를. 신났어요. 그리고 새터는 시설이 좀 더 좋아지고, 모르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자모였던 분이 아이들 식사와 간식도 맡아 해주어서 더 좋아지고, 몇몇 시스템이 바뀌어 있었지만 여전히 편하더군요. 친정 같다고나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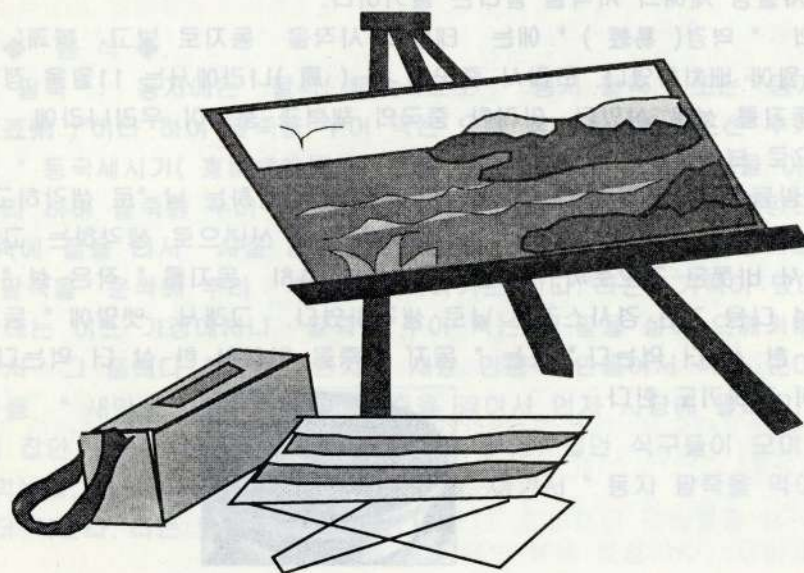
처음 걸린 아이의 열감기와 저의 젖몸살로 적응기간 2주는 지나갔습니다.

4-5세의 쑥쑥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이 연령대를 맡은 것은 쑥쑥반 선생님이 출산 휴가였던 3개월 정도입니다. 그래도 힘이 났습니다. 3월은 아이들과 저의 적응기간이었습니다. 전의 담당 선생님이 남기신 아동관찰 메모를 보며 아이들의 특성을 깨닫고 몸으로 부딪쳐 느낍니다. 말을 안 듣고 아이들의 행동을 어떻게 제어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적응하느라 아픈 아이를 안고 찢끔찢끔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월 한 달로 적응기간은 지나가고 4월부터는 원활한 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로 몇몇 아이가 들어오고, 밑의 반에서 올라오기도 하면서 쑥쑥반은 수가 불었습니다. 수가 늘은 만큼 아이들의 키도, 생각도, 영혼도 커졌습니다. 스스로 양보할 줄 알고, 동생에게 책도 읽어주고, 싸우면 대화로 풀기도 합니다. 교사가 피곤해 보이면 스스로 와서 안마도 해주고 위에 가져올 것이 있다고 올라가서 교사가 한다고 말했던 정리를 싹 하고 내려와서 보여주는 이벤트도 연출합니다.

우리 형주는 우리 아이들의 선물을 많이 받습니다. 바깥놀이에서 주운 가장 작은 나뭇잎, 가장 작은 열매 등등. 모든 가장 작은 것은 우리 형주 차지입니다.

30살 보육교사 김옥희는 아이들의 사랑을 먹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 우리 곁에 숨쉬는 것들을 찾아서.....

동지의 유래

◆ 어 원 ◆

동지는 24절기의 하나로써 일 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24절기는 태양력에 의해 자연의 변화를 24등분하여 표현한 것이며, 태양의 " 황경(黃經) "이 270도에 달하는 때를 " 동지 "라고 한다.

동지는 음력 11월 초순에 들면 " 애 동지 ", 중순에 들면 " 중 동지 ", 그 음계 들면 " 노 동지 "라고 하는데, 이는 동지가 드는 시기에 따라 달리 부르는 말이다.

< 황경 : 황도(黃道)의 극으로부터 어떤 천체를 지나는 대원(大圓)이 황도와 교차하는 점과 춘분점(春分點) 사이의 각거리(角距離)

→ 황위(黃緯)>

◆ 유 래 ◆

동지는 일 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어 음(陰)이 극에 이르지만, 이 날을 계기로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여 양(陽)의 기운이 싹트는, 사실상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다.

중국의 " 역경(易經) "에는 태양의 시작을 동지로 보고 복괘(復卦)로 11월에 배치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주(周)나라에서는 11월을 정월로 삼고 동지를 설로 삼았다. 이러한 중국의 책력과 풍속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옛 사람들은 이 날을 " 태양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날 "로 생각하고 경사스럽게 여겨 속절로 삼았다. 이것은 동지를 신년으로 생각하는 고대의 유풍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전통사회에서는 흔히 동지를 " 작은 설 "이라 하여 설 다음 가는 경사스러운 날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옛말에 " 동지를 지나야 한 살 더 먹는다." 또는 " 동지 팔죽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다."라는 말이 전하기도 한다.



◆ 풍 속 ◆

중국의 "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 "에 의하면 공공씨(共工氏)의 재주 없는 아들이 동짓날에 죽어서 역질(疫疾) 귀신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생전에 팔을 두려워하여 팔죽을 쑤어 물리친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다분히 후대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야기로 팔죽의 축귀(逐鬼) 기능에 대한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동지팔죽은 절식이면서 동시에 벽사 축귀(辟邪逐鬼)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팔은 붉은 색깔을 띠고 있어서 축사(逐邪)의 힘이 있는 것으로 믿어 역귀(疫鬼) 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잡귀를 물리치는 데 이용되어 왔다. 이러한 점은 음양사상(陰陽思想)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즉 팔은 붉은 색으로 " 양(陽) "을 상징함으로써 " 음(陰) "의 속성을 가지는 역귀나 잡귀를 물리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경상도 지방에서는 팔죽을 쑤어 삼신, 성주께 빌고, 모든 병을 막는다고 하여 술안주로 팔죽을 사방에 뿌린다.

또 경기도 지방에서는 팔죽으로 사당에 차례를 지낸 후, 방을 비롯한 집안 여러 곳에 팔죽 한 그릇씩 떠놓기도 한다. 한편 지방에 따라서는 전염병이 유행할 때, 우물에 팔을 넣으면 물이 맑아지고 질병이 없어진다고 한다.

한편으로 동지에는 동지팔죽과 더불어 책력(冊曆)을 선물하던 풍속이 전한다.

◆ 음 식 ◆

동지 팔죽 : 동지에는 절식(節食)으로 " 동지 팔죽 " 또는 " 동지두죽(冬至豆粥) "이라 하여 팔죽을 쑤어 먹는 오랜 풍속이 있다. 조선 후기에 간행된 "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 11월 조에 의하면 " 동짓날을 아세(亞歲)라 하여 팔죽을 쑤어 먹는데, 팔죽을 쑤 때 참쌀로 새알 모양으로 빚은 속에 꿀을 타서 시절 음식으로 먹는다. 또한 팔죽은 제상에도 오르며, 팔죽을 문짝에 뿌려 액운을 제거하기도 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동짓날에는 어느 가정에서나 팔죽을 쑤어 먹는데, 팔을 삶아 으깨거나 체에 걸러서 그 물에다 참쌀로 단자를 새알 만큼씩 만들어서 죽을 쑀다. 이 단자를 " 새알심 "이라고 한다. 팔죽을 끓여서 먼저 사당에 올리고, 그 다음에 집안 곳곳에 팔죽 한 그릇씩 떠놓은 후에 집안 식구들이 모여 팔죽을 먹는다. 이 때 새알심을 수대로 먹는데, 여기서 " 동지 팔죽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다."라는 옛말이 비롯되었다.

■ 오윤정이 추천하는 그림책

빨간끈으로 머리를 묶은 사자

- 오윤정 -



남주현 글·그림

4~8세 / 2003년 3월 / 32쪽 / 226×291 / ISBN 89-90025-02-8

내용 : 어느 날 길을 가던 사자가 숲 속에서 빨간 끈을 본다. 사자는 '이렇게 예쁜 빨간 끈은 처음 보는걸! 이 끈으로 머리를 묶으면 예쁠 거야.' 하고 생각한다. 그래서 날카로운 이빨로 끈을 끊으려 하지만 빨간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 힘센 코끼리가 기다란 코로 당겨도, 사슴이 멋진 뿔로 당겨도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 잔뜩 기대를 하고 있던 사자는 실망한 나머지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데....., 빨간 끈으로 머리를 묶고 싶다는 사자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즐거운 이야기 속에 '소유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책. 웃음을 자아내는 동물들의 표정과 몸짓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도 재미있다.

둘베개 어린이 출판사 꺼랍니다.

딱 5, 6세 아이들에게 적당하구요.

한 10번쯤 읽어줬는데 반응을 한꺼번에 써 볼게요.

전 7세까지 보여줬습니다.

글: 어느날 사자가 길을 가다가 빨간 끈을 보았어요,

어린이반응) 와 뽀얏, 뽀얏,

글: 내 머리에 묶으면 예쁠거야 하지만 끈은 땅에 깊숙이 박혀 움직이지 않았어,

어린이 반응) 가위로 자르면 되는데

막 땅을 파내서 막 땅을 파서 당기면 되는데..

글: 사자가 날카로운 이빨로 끈을 끊으려고 했지만 끊어지지 않았어,

어린이 반응) 사자가 이상해 쿡쿡 뽀, 뽀,

글: 지나가던 코끼리가 물었고, 도움을 청했지요(원문을 좀 줄여 씁니다)

힘껏 당겼지요.(여기선 그림에 거미가 나타나고 사슴이 나타납니다.)

어린이 반응: 거미다, 사슴이다,

여러 가지 동물들이 등장하고, 다양한 해결방법들이 나오는데 아주 재미있을 것 같네요. 아이들과 함께 보세요.

■ 그날의 풍경.....

2003년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 총회를 마치고 》

- 홍 보 부 -

회원들의 지각으로 30분 가량 늦은 16시 30분에 총회가 시작되었지만, 위임장을 쓴 회원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가하여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앞풀이로 이수미선생님의 일본연수보고가 있고, 뒤이어 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신입회원이 무려 9명이나 들어왔고, 카페 '보육교사 119'를 통해 한국보육교사회와 서울지부를 알게 된 '난 인어공주'님이 총회에 참가한 후 회원으로 가입하셨습니다. 올해는 마지막 달인 12월까지 참 좋은 일들이 있는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회의 하이라이트는 회칙개정과 임원선출이었다고 봅니다.

회칙개정 때는 말 한마디마다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 찾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려(추후에 또다시 개정할 부분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제법 좋은 회칙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에서 나온 개정안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임원(지부장(회장)과 사무국장)을 새로 뽑는 임원선출 때는 한 교사의 갑작스런 추천으로 앞에서 진행하던 현 지부장님과 운영위 등이 잠시 소란스러워졌지만, 그 의견을 받아들여 운영위 등에서 추천한 기호1번 팀과 총회에서 추천 받은 기호2번 팀으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 선거 결과로

지부장님 : 이경녀선생님

사무국장님 : 김숙자선생님

이 되셨으며, 집행부의 조직부장과 홍보부장은 올해와 똑같은 김미나 조직부장님과 이보경 홍보부장님이 2004년에도 수고해 주시기로 했고, 교육부는 새로이 이성봉 선생님이 교육부장직을 맡아 주셨습니다.

30분 가량 늦은 총회 시작과 회칙개정 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때문에 예상보다 늦은 저녁 식사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회원들이 어느 정도 식사를 마친 후 기다리고 기다리던 뒤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진행자가 임의로 회원들이 가져온 선물을 나눠 준 후 3번에 걸쳐 자기가 가지고 싶은 선물로 바뀌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선물 포장은 뜯지 않은 채) 3번을 돌고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물을 뜯어보았을 때는 그냥 제비뽑기로 했던 선물보다 더 재미있었습니다. 어떤 선물을 골랐던 것인지 궁금증도 더 했구요. 대부분의 회원들이 만족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뒤풀이까지 마치고 모두들 즐거운 2차를 가서 23시가 넘도록 이야기꽃을 피우고 헤어졌습니다.

이 날 참석하신 회원들만 19분이었고, 한국보육교사회 공동대표님과 보육교사회 사무실로 상담 오셨다가 총회에 참석하신 분까지 2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해서 제가 참석했던 서울지부 총회 중에서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계속 서울지부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해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퇴임사 *^^*

- 김진숙 -

김진숙 지부장님은 올해까지 3년간 서울지부 지부장으로서 수고해 주신 분입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신 김진숙지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회원이 되신 후에도 서울지부 일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서울지부 회원여러분!

장난스럽게 쓰려고 했는데... 잘 안되네요.
후련하겠다는 말과 섭섭하겠다는 말을 같이 듣는데
아무 감상도 없네요.
아직도 남아있는 해야할 일들 때문인가...
내년 사업계획도 같이 세워야하고, 1월에 있는 중앙 총회도 준비해야하고...

이번 총회를 준비하면서 여느때와는 다른 분위기여서 좋았습니다.
운영위원들이 임기를 마치지만 내년 임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다짐도 하고,
후임을 못내서.. 라고는 하지만 해온 역할을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다는 집행부장들도 있고,
아는 건 없다고 하지만 선배와 동료와 함께 해보겠다고 집행부장을 결심하는 회원도 있고...
서울지부의 성숙한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지부장과 사무국장을 결심하고 선출된
경녀와 숙자연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큼니다.
그동안 함께 하며 보여주었던 모습처럼 든든히 해내리라는 믿음이 있고
이들과 신뢰와 애정으로 함께 할 회원들을 믿습니다.

저는 내년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몇년만에 가져본 평회원인지...
지부장 3년만이 아니라 그전에 총무에 지회장에 분과장에...
참 오랫동안 일꾼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 물론 회원은 모두 일꾼이지요.^^

하고픈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못했던
소모임, 부서활동, 월모임, 연수, 수련회 등등의 준비팀...
여러가지 중 어떤 것을 할지는...
자알 꼬셔보세요.^^

신나고 재미있게 회원활동 하렵니다.

● 서울지부 활동 소식 ●

10월 14, 21, 28일

: 근로기준법 연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중앙 사무국에서 주관하는 보육교사 현장 상담 과정 교육에 참가하여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실제 상담에 적용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10월 18일

: 서남 어린이집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발도로프 교육에 대해 눈과 가슴으로 많이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장 방문후에도 서울지부 10월 월모임도 진행하였습니다.

이윤경 한국보육교사회 대표님을 모시고 보육노동조합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0월 20일 ~ 11월 1일

: 보육교사회 한일 현장교류가 있었습니다. 서울지부에 김진숙, 이수미 선생님이 참여하여 무사히 일본 현장을 체험하고 오셨답니다. 많은 힘받고 온 시간이었습니다. 두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월 6일

: 보육교사회 조직부장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조직부장님들이 오랜만에 함께 모이는 자리입니다. 서울지부의 김미나 조직부장이 참석합니다.

11월 7일

: 서울지부 확대 운영위가 교사회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들과 집행부장들이 모여 총회준비와 내년도 사업계획을 의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11월 21일

: 서울지부 11월 월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올해 마지막 월모임입니다. 모두 참여하여 그 동안의 회포를 풀 수 있었으면 합니다.

11월 26일

: 11월 월모임이 있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모임으로 서울지부가 1년 동안 함께 고민했던 새로운 조직 건설에 대한 것들을 총정리하는 복습(?)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한 회원들도 많이 참석하여 1년의 흐름을 공유하는 알찬 시간이었네요.

11월 29일

: 총회 준비를 위한 확대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사업을 검토하고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총회가 되기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시간이었지요. 올 해 마지막 운영위원회의이기도 했습니다.

11월 30일

: 홍보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해를 평가하고 새로운 홍보부의 활동과 구성원을 정하는 중요한 모임이었습니다. 홍보부의 중요한 활동인 소식지 발간과 인터넷 카페 운영에 대한 대외 홍보면에서의 긍정적인 평가는 홍보부를 더욱 힘있게 해주었지요. 내년도 홍보부를 대표해 이보경 선생님이 한 해 더 수고하기로 결의하며 서로의 수고를 자축한 시간이었습니다.

12월 06일

: 근로기준법 연구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보육사업 지침을 비교 연구하는 공부가 한참 진행중입니다. 연구한 내용을 회원들과 함께 어떻게 나눌 것인가, 외부 보육교사들의 의식향상을 위해 모임원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12월 05일

: 서울지부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2003년 서울지부의 활동들을 다시 한 번 평가하고, 새로운 해의 계획을 회원들의 권리로 세워 가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회원들의 보육현장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교사의 힘으로 교사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자던 2003년의 활동목표가 충실히 수행되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2004년을 앞두고 훌륭한 일꾼들을 선출하는 시간에는 서울

지부 사상 처음으로 경선투표가 치뤄져 선거가 뜨겁게(?) 돌아올랐지요.

치열한 접전을 펼쳐 이경녀 선생님이 서울지부의 새로운 지부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사무국장에는 동반 출마한 김숙자 선생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서울지부 회원들의 애정 어린 지지를 받으며 서울지부를 대표하게 된 두 선생님과 함께 활기찬 서울지부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참, 몇 년 동안 서울지부를 위해 애써온 김진숙 선생님을 아쉬운 마음으로 평회원으로 강등(?)시킬 때에는 모두 서운한 마음이었다네요. 또 한해 동안 수고한 이상옥 사무국장과 운영위원들에게도 회원들의 감사의 마음이 전달 되었구요.

그리고 이 날 총회에서 차기 집행부장들도 모두 인사를 하였는데.. 이보경 선생님이 홍보부장으로, 이성봉 선생님이 교육부장으로.. 김미나 선생님이 조직부장으로 수고하기로 했습니다. 벌써 내년을 위해 일꾼들도 결의를 내고 .. 정말 기대가 되는 서울지부 입니다.

12월 25일

: 서울지부 송년회가 있습니다. 새로 선출된 이경녀 지부장님 집에서 와인 과 맛난 음식, 그리고 따뜻하고 든든한 사람들이 함께 하는 새로운 분위기의 송년회입니다.

12월 30일

: 차기년도 일꾼들의 첫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2004년도 활동계획을 미리 생각해보고 일꾼들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01월 10일 -11일

: 한국보육교사회 전국 총회가 있습니다. 부천 복사골 문화원에서 회원 수련회를 겸해 있습니다. 전국의 회원들을 오랜만에 함께 만나고 교사회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서울지부 회원들도 모두 참석해 회원의 권리를 누리고, 반가운 만남을 갖도록 하지요.

■ 회 원 동 정 ■

- 김숙자 선생님이 1월 중순 경부터 한달 동안 꿈에 그리던 인도 일주에 올립니다. 다른 회원들의 부러움을 사며 겨울 인도 일주에 오르는 숙자 선생님! 뭔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 김은규 선생님이 교사회의 새로운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교사회를 알고 지내셨다는데 이제야(?) 우리회의 식구가 되어서인지 항상 알고 지내온 것 처럼 반갑고 푸근합니다. 은규 선생님! 너무 너무 환영합니다 !!
- 박성희 선생님이 교사회의 새로운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미 서울지부 인터넷 카페에서 '난 인어공주!'로 유명한 선생님이었는데 드디어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호탕한 선생님이 에너지가 교사회에 널리 퍼지길 기대합니다 ^^

한국보육교사회 겨울수련회 및 총회 안내

2004년, 보육운동의 새로운 전진 희망찬 원년을 만들자!!

2003년 뜻깊고 보람찬 한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에서는 다가오는 새해 2004년을 더욱 힘차고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 총회를 개최합니다. 회원 한분 한분 빠짐 없이 손에 손을 잡고 참석하여 보육의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 다시금 결의를 모으는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 제 8차 한국보육교사회 총회 및 겨울수련회 >>

1. 일 시: 2004년 1월 10일(토) 오후 5:30부터 11일(일) 12:30까지
2. 장 소: 경기도 부천 북사골 연수원(2003년 총회 장소와 동일)
3. 준비물: 나눔장터에서 교환 할 물건 1개 이상, 개인 세면도구
4. 회 비: 25,000원
5. 참가신청: 각 지부, 지부가 없는 지역의 회원은 중앙사무실
6. 전화번호: 02)2275-8505(중앙사무실), 016-603-6116(사무국장), 018-356-8581(조직간사)
7. 약 도: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송내역(북광장)→전방 500m(도보8분)→북사골연수원
8. 기 타: 총회장소가 아동이 활동하기에 편하지 않은 관계로 가급적 아동을 동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만 동반(육아도우미는 24개월 이상만 보육)